

다산포럼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싶다



김 정 남
언론인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애 매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국민이 모이고, 왜 국회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다수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직도 그 까닭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세 차례에 걸친 담화나 마지막 국무회의의 간담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막판에 단행한 국민통합위원회장, 인권위 상임위원, 민정수석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보면 그 오기와 철면피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두 달 가까이 ‘대통령 박근혜’와 관련한 음습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너나없이 더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누구 말대로 너무도 갑작은 인물이 박근혜 뒤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에서 국민은 참담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과 같은 급이었고, 정권 자체가 사실상

최순실·박근혜 공동정권이었다는 증언을 들으면서 그 모욕감은 절정에 달했다.

최순실이 ‘보안손님’으로 출입증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하고,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일정과 대통령이 할 말까지 점검했다니, 장관과 수석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받아 적었던 것들이 필경은 최순실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차(車) 아무개가 추천하는 그의 대학시절 지도교수가 갑자기 장관이 되고 그 외삼촌이 수석이 되었으니, “이게 나라냐”는 울분 어린 탄식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정호성의 음성 파일만 공개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일인자화 만인지상으로 행세하던 왕실장은 이제와서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제록 대통령의 총애와 보호를 받던 민정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 우편물을 받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뺨소니 범람마꾸라지’ 행각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최순실을 뒤에 두고 국정을 쥐락펴락 농단했던 그들이 실상은 하찮은 쥐새끼들에 지나지 않았는지 국민은 더할 수 없는 치욕감을 느낀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이 정권 안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간(諫)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항거한 사람이 오직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 한 사람뿐이었

으니, 박근혜 정권 안에는 온통 간신과 내시만 있었다란 말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들이 사과 한마디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4·19혁명 당시만 해도 그해 4월 21일, 전 국무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정권 4년은 역사를 거슬러 여행하는 기간이었음에 비추어, 무엇보다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그 대표적 인 것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작업과 1만여 명에 달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다. 시대에 여행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자체도 문제이지만, 정권의 그릇된 역사 인식의 강요가 더 큰 문제다. 일례로 검토본에 나온 제주 4·3사건 기술은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건의 정의조차 외면하고 있다.

유신시대의 망령인 블랙리스트가 대명천지 21세기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박근혜 정권에 의한 역사의 역주행을 증언하고 있다. 타계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문화예술계의 각종 좌파 책등에 투쟁적으로 대응”, “영향력 좌파인식 네트워크 파악 필요” 등 색깔론으로 각색한 나치식 문화탄압을 비서실장 김기춘 등이 지시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헌법

은 물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 유린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진실은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송해마지않았던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말장난겉데기, 도로아미타불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가져온 이 대한민국의 치욕, 떨어진 국격과 그리고 그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금은 국민의 촛불이 막아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건곤일척의 시험대 위에 올라있다.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위상과 수준이 새롭게 설정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와 같은 구차한 변명보다는 그동안 국민으로 하여금 비탄과 우울과 치욕에 빠뜨리게 한 역사적 죄과와 무능을 솔직하게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제 발로 떠나길 바란다. 이렇기 시인이 ‘낙화’에서 노래한 것처럼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애국자인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한 가득 연민이라도 남겨질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社 說

‘친박 8적’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이른바 친박(친 박근혜)계는 꼼짜도 하지 않고 있다.

정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령 직무 중지 사건에 있어 집권여당은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철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서정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진태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 8명을 ‘친박 8적’으로 규정하며 탈당을 요구했다. 비상시국위원회는 전날에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은 당을 떠나라”고 촉구했었다. 친박계가 ‘혁신과통합연합’ 모임을 결성할 때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실상 보수 재건을 반대하는 수구 세력이 모여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을 사당화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며 모임 해체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철현 새누리당 대표는 “누구누구를 거명해서 나가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가소로운 짓”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8만 당원들이 검증을 통해 뽑은 지도부를 무력화하고 저들이 당에 여러 가지 해를 끼쳤다”며 “33년 정치를 해왔지만 그런 행동은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뺨뺨한 짓”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대표가 ‘가소롭다’느니 ‘뺨뺨하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러한 말들을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

친박들은 아직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주권(主權)으로 받은 박 대통령이 정치적 파면 선고를 받는 순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탈당을 하거나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

탄핵 정국에 AI대책 소홀한 것은 아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 피해가 1천만 마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가금류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정부의 능력 대응이 사태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2일 0시까지 228개 농가에서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878만8천 마리가 살처분됐고, 14개 농가의 154만1천 마리는 살처분이 예정돼 있어 1천만 마리를 훌쩍 넘기게 됐다. 이런 추세라면 2014년 고병원성 AI(H5N8형) 확산으로 입었던 역대 최대 피해 규모를 수일 내에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올해 고병원성 AI피해가 눈덩이

이처럼 불어난 데에는 H5N6형 AI 바이러스의 강한 독성, 농가의 방역 의식 약화 등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하룻밤 사이에 한 농장에서 수백 마리 또는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의 능력 대응도 AI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적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AI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 강화를 지시했는데 이는 지난달 16일 해남군 가금류 농장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26일 만이다.

AI는 한 번 발병하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AI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강제학습 없는 광주, 그렇게 어려운가요?



임 진 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교육시민단체,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광주강제학습대책위가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강제학습 반대, 아간자율 학습 선택권보장을 요구하며 피켓을 든 지 70일이 넘었다. 작년에도 90일 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학생 선택권보장 등을 교육청으로부터 약속받았지만 학교 현장은 별 변화가 없었고, 학생이 제대로 선택권을 갖기 어려운 현실과 이를 온존한 시스템도 여전히 그대로 보였기 때문이다.

대부분 공립 학교는 아간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별로 관리자나 교사의 행태에 따라 편차가 많았다. 특히 사립교고는 예외없이 강제학습을 시키고 있었다. 허울뿐인 신청서는

요식행위일 뿐이고 학부모, 교사, 주변 친구 등에 의해서 은근히 강요받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대놓고 강제하거나 체벌까지 하는 학교도 일부 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 피 끓는 청춘들을 학교에 잡아놓고 있는 것이 반인권적 비교육적이라는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정규수업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과 아간 자율 학습이 그들의 진로와 진학, 구체적으로 입시에도 대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가 따져 볼일이다.

아간자율 학습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는 무관한 학습을 위해 억지로 학교에 남아 있게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시간과 활동을 제약하고 뺏는 일이지 학습을 위해 남아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일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자’를 하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면 갈 곳도, 할 만한 활동도 별로 없기에 대책 없이 학

교 밖을 나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차라리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학교에 있는 것이 낫다는 사람도 있다. 아이들의 심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은 학교와 교육청이다.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봤자 누구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학교와 교육청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떡할 건데? 아이들이 아자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면 학교와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가? 다른 대안은? 물론 학교와 교육청에 묻고 싶은 말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아직까지 뚜렷이 제시해줄 만한 지점들을 찾지 못한 것 같다. 학교 밖 아이들이 집에서 잠을 자든지, 학원을 가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든지, 그것은 아이들의 자유이고 선택이다. 하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도 지원과 공간이 없어서 포기하지는 않아야 한다. 무엇을 택하더라도 적어도 선택할 기회와 선택지는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시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간과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자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교육청과 학교는 충분한 홍보와 안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원하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야 한다.

언제까지 불안감과 무대책으로 학생들을 아자의 불모로 남아 있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불안하고 자신감 없기는 교육청도 학생과 학부모 못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정책을 완벽한 기반 위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책방향을 세우면 이에 대한 여론을 듣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설득과 교육, 홍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다. 지금 당장 잘했다는 칭찬을 받기 어렵더라도 과도가 혼란으로 질책을 받게 되더라도 결국은 가는 방향이 올바른지 험난한 길도 같이 가는 지원군과 사람들이 모여든다. 학생, 학부모가 지원군으로 그 앞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대책 없는 강제 학습을 중단하고 방과 후를 하라고 논하자.

기 고

꿈을 먹고 사는 삶 -박철민 토크 콘서트를 다녀와서



김 유 빈
목포여자고등학교 3년

수능시험이 끝난 시점 우리 반 풍경은 ‘외장청’ 그 자체였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지만,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반장인 나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때, 전남문화관광재단이 ‘G3들과 함께하는 박철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친구들과 나는 삼사오오 모여 신청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유명배우를 본다는 설렘에 가득 차 콘서트 날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당일, 주최 측에서 마련한 버스와 간식 덕분에 편하게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학교 대표들과 함께 패블 토크에 참여했다. 온 종게도 박철민 삼촌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됐고, 신기한 마음에 삼촌을 톨

어지게 쳐다보기에 바빴다. 더군다나 토크 참여자에게 공지되는 문자를 받지 못한 탓에 무방비 상태에서서 부담감도 컸다. 하지만 사회자의 재치 있는 진행과 박철민 삼촌의 입담에 녹아들었고,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박철민 삼촌에게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렸다. 1년 동안 반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기도 했다. 가지각색의 재능과 적성을 가진 친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해야만 하는 일에 급급한 현실이 안타까웠다. 꿈을 향한 강한 동기부여와 스스로에 대한 자아성찰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삼촌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성인이 되기 전 이 긴 몇 달의 시간 동안 열정을 바치고 몰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다. 처음에는 뜬구름 같은 소리가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야기를 들으며 조언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삼촌은 무명 생활을 견디고, ‘명품조연’ 배우가 될 때까지 ‘꿈을 먹고 사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정확히 알았기에 며칠 잠을 못 자도 행복할 수 있었다. ‘꿈을 쫓는 삶이 아닌 현실 살’을 살아온

것이다. 돈이 없어 언제 배고플지 몰라 많이 먹어줬다던 봉지라면도, 부인과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던 과일장사도 삼촌에게는 현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꿈을 먹고 살게 하는 축진제가 됐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일화 중 과일장사가 기억에 남는다. 고객들의 특징을 수첩에 적었고, 캐릭터를 뽑아내 연극에서 표현했다고 하셨다. 간단한 생활에도 꿈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삼촌이 원래 긍정적이고 강한인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꿈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열정,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의 표정이 그 사실을 증명했다. 삼촌의 말은 꿈을 향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도 ‘명품’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삼촌의 “꿈을 먹고 사는 삶은 배고프지 않다”는 말은 모든 학생과 내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고대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출발점으로 나아간다는 설렘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더 험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격려의 말 말이다. 또 경제·사회적 여건을 따지지 않고 원하면 해도 된다고 격려해주는 말이 지금의 G3에게는 가장 필요한 조언일지도 모른다.

연예, 가족이야기부터 진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어렵게도 토크 콘서트는 끝이 났다. 박철민 삼촌은 사인을 해주시고, 사진을 찍어 주시면서다 끝까지 우리에게 격려를 잊지 않았다.

패블 토크에 참여했던 나는 달력과 수첩 등 여러 가지 기념품을 받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삼촌의 이름이 적힌 싸인 한 장이었다. 그가 유명한 배우여서가 아니었다.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회적 입지와 시선 때문에 진로를 정하지 못했던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고 미약한 의지에 힘을 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시간의 짧은 시간은 동안 큰 깨달음을 얻으며, 또한 앞으로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10대들과 나의 후배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미래를 향해 즐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됐다. 모두가 ‘꿈을 먹고 사는 삶’을 살며 행복하길 바란다.

無 等 鼓

흔히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한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자신의 의지가 살아 있는 한 기꺼이 나서는 것이 ‘도전’일 것이다. 그러나 탐험가나 산악인처럼 세계 최고봉을 오르거나 국지를 횡단하는 등 극한 환경 속에서 인간 능력을 시험하는 것만이 ‘도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그마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름다운 도전’은 일반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 준다.

패션 디자이너 이광희(64) 씨는 아프리카 최빈국 남수단 톤즈에 망고나무를 심

아름다운 도전

고 있다. 지난 2009년 우연히 톤즈를 방문할 때만 해도 영화 ‘아우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낭만적인 모습을 연상했다. 하지만 막상 현지에 가 보니 풀 한 포기 볼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망고나무만은 잘 자랐고, 연중 두 차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다. 망고나무는 주민들의 배고픔을 덜어주는 중요한 식량원이자 소득원이 되는 ‘생명의 나무’였다. 이후 (사)희망의 망고나무를 만들어 망고나무 보급에 나서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목

공과 재봉 기술 등 직업교육에 발 벗고 나섰다.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9월 인터뷰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눔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통입니다.”

영화배우 김보성(50) 씨가 지난 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경기에 나섰다. 지천명(知天命)의 적지 않은 나이에 파이터로 변신한 그의 모습은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링에 오르려는 이유를 듣고서는 ‘아름다운 도전’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그 고개를 넘었다. 지난 2009년 우연히 톤즈를 방문할 때만 해도 영화 ‘아우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낭만적인 모습을 연상했다. 하지만 막상 현지에 가 보니 풀 한 포기 볼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망고나무만은 잘 자랐고, 연중 두 차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다. 망고나무는 주민들의 배고픔을 덜어주는 중요한 식량원이자 소득원이 되는 ‘생명의 나무’였다. 이후 (사)희망의 망고나무를 만들어 망고나무 보급에 나서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목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집 부 220-0649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치 부 220-0632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FAX 02-773-9335)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